Q 협상 중에도 전투가 계속된 까닭은 ?

A 휴전협상은1951년 7월 10일 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간 지속되었다. 그런데유엔군과공산군은 협상 중에도 치열한 전투를 계속 전개했다. 유엔군은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해결되지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는수단으로, 그리고 공산측에게휴전조건을강요하는수단으로군사작전을전개했다. 반면에 공산군은휴전협상과정에서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위해 전력 증강을 도모하고, 일부빼앗긴 진지를 탈환하는등 군사력과시를통해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장악하기위해 전투를실시했다. 이렇게됨으로써 ‘ 일면협상, 일면전투가 정전협정이체결될때까지계속되었다.

유엔군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유엔군이 중공군의‘ 4월과 5월의 춘계공세 ’를 물리치고 38도선 이북까지 진출하는 등 군사적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군은 해 · 공군력을 앞세워 평양 - 원산선까지 진격할 수 있었으나, 이럴 경우 중공과 소련이 휴전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 북진할 경우 엄청난 인적 · 물적 피해와 함께 병참선의 신장으로 군사

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정규군이 더 필요하고, 이러한 미군 1명을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연간 4,500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다. 따라서 20만명이면 단순 추가 비용만 해도 9억 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미군의 인명피해가 너무 컸다. 1951년 6월말 미군의 전사망자는 21,300명이고, 부상이 53,100명이며, 실종 및 포로가 4,400명으로 모두 8만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는 6·25전쟁 3년기간 동안 발생했던 미군 피해 약 14만 명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피해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막아내고 전쟁 이전 상태를 회복한 1951년 6월이 휴전회담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했다.

공산군(중공·북한·소련)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중공과 북한은 1951년 6월 휴전을 대체로 희망하고 있었으나, 병력을 파견하지 않은 채 물자 및 장비만을 지원하고 있던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쟁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다.

중공은 1951년 춘계공세에서 입은 약 10만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사기가 저하되었고 미군보다 뒤떨어진 화력의 열세 앞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 중공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60개 사단분의 전투장비와 보급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중공은 전쟁 이전 상태인 38도선만 보장되면 휴전할 생각이었다.

북한의 김일성도 1951년 전선 상황을 보고 휴전을 고려하였다. 북한

<표> 유엔군과 공산군의 휴전회담 수용 이유

미 국		· 유엔군이평양 · 원산으로진격시, 공산측휴전회담불응우려 · 전쟁계속할경우미군병력 20만명및예산9억달러추가소요(1인당 4,500달러) · 미군의막대한인명손실, 1951년6월현재 78,000명피해
공산군	중 공	· 춘계공세시10만명피해로사기저하및화력열세인식 · 소련60개사단분전투장비미지원
	소 련	· 미국과의확전회피 · 명예로운휴전모색(38도선확보목적)
	북 한	· 북한전지역초토화로체제위기, 승리해도전후복구곤란 · 제2의인천상륙작전시전세만회더욱곤란

은 유엔군의 북진작전에 맞서 개입한 중공군에 힘입어 일시 전세가 호전되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이용, 북한전역을 초토화시킴으로써 북한에는 더 이상 폭격할 목표물이 없게 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체제 위기와 함께 또 다시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다시 감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휴전협상을 서두르게 되었다.

스탈린도 처음에는 휴전협상에 반대했으나, 결국 북한과 중공의 설득으로 휴전협상에 동의한 후 배후에서 이를 조정했다. 소련은 미국의 개입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라는 상황에 접하면서 미국과의 확전(擴戰)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소련은 한국전쟁이 미 · 소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38도선을 경계로 한 휴전을 바라고 있었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휴전회담 중에도 전투를 한 이유

유엔군은 현재 전력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의 유혈을 방지하고자 회담에 응했으나, 북한군과 중공군은 휴전회담을 이용, 진지보강과 전력 증강을 꾀하면서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군사목표를 이루겠다는 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회담이 결렬되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휴전협상 중 유엔군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유엔군이 요구한 협상조건을 공산측이 받아들이지 않을때 전투를 재개했다. 유엔군은 협상중에도 제한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적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적의 공격 기도를 분쇄했다.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도모하였다. 또한 그들은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여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엔군 진지 중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거나 취약한 진지에 대해 공격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휴전회담장에서 말로 싸우는 ‘ 설전(舌戰) ’을 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전선에서 휴전 후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지쟁탈전이라는 ‘ 혈전(血戰) ’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도‘ 중지 및 재개 ’의 반복을 거듭하게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1. 미국과 공산군(소련 · 중공 · 북한)은 왜 휴전회담에 응했을까?
2. 유엔군과 공산군이 휴전협상을 하면서도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이유는?